

온양문화원 실버문화학교 ‘우수상’ 수상

전주 실버축제 경연에서 짚풀공예 전시체험으로 인기 끌어



온양문화원(원장 김시겸)이 지방문화원 중심 프로젝트인 실버문화학교 종합평가대회인 2008 전주 실버문화축제 전국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일 개최하여 12일 막을 내린 이번 축제는 전주 한옥마을에서 100개 문화원이 3개월 동안 배운 종목들을 전시, 발표하는 행사로 온양

문화원은 올해 처음으로 실버문화학교에 선정되어 짚풀공예전시 체험으로 우수상을 받게 됐다.

짚풀공예는 농업부산물인 짚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에 유용한 제품을 만들어 소일거리가 아닌 전승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양문화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

온양문화원 실버문화학교는 잊혀져 가는 전통공예를 되살려 후대에 전승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짚풀공예교실을 지난 6월 개강했다. 매주 토요일 2시간씩 온양문화원 향토자료관에서 이철우·한원택 강사의 지도아래 30여명의 어르신들이 계란꾸러미 만들기부터 짚신, 둥구미까지 다양한 작품을 배우며, 향토문화 전승자로서의 발을 내딛었다.

이번 축제에서 온양문화원 짚풀공예는 관람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회원들이 그동안 만들어 온 작품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고, 축제현장에서 체험하는 계란꾸러미 만들기는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모두 하나씩 손에 들고 다닐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특히 계란꾸러미는 직접 구운 달걀을 짚으로 엮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인기를 높이며 어른들에게는 옛 추억을 회상하고 신세대들에게는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세대공감의 자리를 마련하여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

짚풀회원들은 그동안 전주 실버문화축제 참가를 앞에 두고 사회복지박람회, 온양온천문화예술제, 충남평생학습축제 등 아산지역의 굵직한 축제에 참가하여 관람객들에게 계란꾸러미 체험을 통하여 아산의 새로운 짚풀문화를 알리는데 크게 일조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온양문화원 실버문화학교 짚풀공예는 향후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향토문화를 이어가는 전승자로서의 역할까지도 도맡아 하게 됐다.

김시겸 문화원장은 “이번 수상은 짚풀공예 회원들의 향토문화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짚풀공예를 아산지역의 특산품으로 특화시켜 나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